



김 영 옥
(한국돼지질병연구회 회장)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설사병’ 만 없으면 돼지는 키울만 하다고들 말한다.

설사막는 비방(秘方)이나 특효약(特効藥)은 없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때마다 나는 비방도 특효약도 말해주지 못하는 내 실력에 자조(自嘲)를 금하지 못한다.

돼지를 키우지 않으면 돼지병도 없고, 비방도 특효약도 필요없지 않느냐(?) 또, 돼지새끼를 생산(生産)하지 말고, 비육돈(肥育豚)만 사다 기르면 ‘설사병’도 없을 테니 이것이 비방이고, 특효약이 아니냐(?)고 말하면 모두 웃는다.

병원(病菌)을 갖고 있지 않은 돼지를 병원균이 없는 돈사(豚舍)에서 병원균이 침입하지 않게 키우는 것도 비방이고, 특효약이라고 말하면 웃기지 말라고 한다. 사실, 완전무균돈(Germ Free), 무균돈사, 완전 방역을 하면 된다고 하

니 이것은 양돈(養豚)이라고 할 수 없는 연구 시험사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정 병원균 부재돈이라는 SPF돼지도 몇가지 특정 질병만 갖고 있지 않은 돼지란 뜻이지 일반적인 설사병원마져 없는 돼지란 뜻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돈가들은 설사병원균이 없는 돼지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설사병이 나지 않도록 시설·환경 및 사육 관리를 잘 해줄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면 현재까지 이 ‘설사병’을 막기 위해 하고 있는 방법들을 우선 살펴보자.

- ① 임신돈에 대장균 백신 접종.
- ② 임신돈의 분만사 조기 입주.
- ③ 분만사 입주전 임신돈 구충·체표약욕
- ④ 분만사의 수세·소독·생석회 도포 등 임신돈 입주전 준비작업
- ⑤ 신생자돈에 분만 즉시 설파제나 항생제 주사.
- ⑥ 모든 유방 닦아주기(소독약: 초유먹이기전)
- ⑦ 초유 충분히 먹이기.
- ⑧ 칠분주사.
- ⑨ 분만사의 청결·보온·건조상태 유지.
- ⑩ 특히 분만사의 케이지화(철망돈사), 창문 없는 무창돈사 등.

위에서 말한 방법외에도 양돈장 나름대로 갖가지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사실 이 방법 하나 하나가 옛날에는 비방(秘方)이라면 비방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미 보편화 되어 비방이랄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돼지를 키우면서 전염성 위장염(TGE)이라든지 하는 바이러스성(病毒性) 설사병과 변질된 사료에 의한 곰팡이 중독성 설사병도 경험하게 된다. 또 살모넬라다 피똥 누는 돈적리(豚赤痢)다 하는 설사병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고질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역시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설

사병이다.

항상 꼴치를 씹히는 이 설사병은 새끼가 태어나는 바로 그 시각부터 젖떼기 전후까지 계속된다. 그 발생 피해는 농장의 사육환경과 관리에 따라 그 정도차가 심하다. 같은 농장에서도 계절에 따라 발생 정도차가 있기도 하지만, 계절에 관계없이 갑자기 많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있다.

이 대장균성 설사병 피해가 큰 양돈장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설사병의 예방은 자돈의 설사똥을 물에 타서 임신 모돈에 1주일에 1ℓ씩 2~3회 먹이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첫째, 분만사의 '올인-올아웃' (한꺼번에 돼지를 넣고, 한꺼번에 빼내는 방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둘째, 초산돈의 분만이 많을 때 설사병이 많다.

세째, 분만사가 축축하며 더럽고, 겨울에 외풍이 심하여 차고 습하다.

네째, 임신돈의 개체관리가 되지 않아 너무 살찐 돼지와 비쩍 마른 돼지가 많다.

다섯째, 새끼를 낳을때 분만보조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초유(初乳)를 분만 즉시 먹이지 않거나 충분히 먹이지 않는다.

여섯째, 초사료(初飼料, 대용유) 급여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

일곱째, 소독(消毒)의 중요성을 무시하여 거의 모든 소독을 않거나 허술하게 한다.

여덟째, 설사가 발생해도 발견 즉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약제사용을 효과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아홉째, 오염돈사에서 계속 분만을 시키고, 그 돈사의 청정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열째, 인원이 불안정하여 분만사 관리자가 자주 바뀌므로 책임관리가 안되고 있다.

위와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위와같은 실패원인을 제거하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설사예방의 비방이며 특효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비방(秘方)과 특효약(持効藥)을 실제 수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대장균성 설사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농장이 있다면 위 사항을 농장 나름대로 점검·개선하여야 하며 참고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실시해 보기 바란다.

우선, 임신모돈 특히, 초산모돈을 병원성 대장균에 면역시켜라.

① 대장균 백신을 하는 방법 (충분한 예방 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나 발생율을 감소시킨다).

② 분만사 자돈들의 설사똥(下痢便)을 모아 같은 양의 물에 타서 임신사에 있는 임신모돈에 1주일에 1ℓ 정도씩 2~3회 나누어 먹인다. (백신보다 더욱 효과가 좋을 때가 많다)

둘째, 설사가 많이 발생하는 오염된 분만사는 빨리 비우고 철저히 소독하라. 즉 오염된 분만사에서 분만을 계속하면 피해만 늘 뿐이다. 빨리 비우고 천정과 벽의 먼지까지 깨끗히 씻어

내고, 2~3%의 양젖물이나 또는 좋은 소독약을 권장량의 2배 농도로 돈사 전체가 젖을 정도로 충분히 소독한채 최소한 2주 정도 비워두라. 그 후 돈방바닥과 벽은 생석회를 바르고 천정과 벽, 바닥을 다시 소독약으로 소독하며, 생석회가 말랐거든 임신돈을 입주시켜라.

세제, 신생자돈 설사병이 발생하는 농장에서는 초유를 먹이기 전에 항생제나 지사제를 현탁액으로 만들어 미리 조금 먹이 후 초유를 충분히 먹여라. (한배새끼 전부)

① 초유를 먹이면서 태변(胎便)이 묽은 돼지는 표시하여 아침, 저녁 설사약을 먹여야 한다.

② 한복 중 한두마리가 설사를 하거든 그복 새끼 모두를 치료하고, 가능하면 옆방 새끼들도

예방·치료해 주라.

네제, 설사치료는 조기에 철저히 하라. (치료의 성패와 효과는 발병후 경과시간에 좌우된다)

① 5% 포도당이나 링겔(또는 식염수)을 따뜻하게 데워 겐타마이신 등을 타서 복강내로 10~20ml(체중에 따라) 주입해 주면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수의사의 지도를 받아라)

② 보조치료로 음수 1l 당 포도당 20g, 중탄산 나트륨(소다) 0.2g, 비타민C 0.05g을 타서 먹이면 치료 회복이 빨라진다.

이상과 같이 시행해도 '설사병'이 잡히지 않거든 전문 수의사에 의뢰해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월간양돈” 표지 사진 공모 안내

본지에서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 월간양돈지 표지에 실릴 사진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농장에서, 도축장에서, 또는 기타 장소에서 양돈을 경영하면서 농치기 아까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본지로 보내주시면 매월 접수된 작품을 심사하여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상금을 보내 드림과 동시에 다음 발행호 월간양돈 표지로 게재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 : 100-00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234

번지(축산회관 5층) 대한양돈협회

홍보부 표지사진 담당자 앞.

● 모집대상 : 월간양돈 독자

● 모집내용 : 양돈관계 사진

● 모집기간 : 매월 15일 마감(연중)

● 시상내용 : 당선작 1점 (5만원)

● 기 타 : ① 사진과 함께 촬영 장소와 사진 설명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② 보내신 분 주소, 성명, 전화번호, 근무처, 주민등록번호 기입 바랍니다.